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본 역량중심 교육과정



김종훈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교육과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예비교사들을 길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임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다.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성경적인 세계관에 충실하게 개발된다면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 국가 교육과정 문서와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경, 은혜와 같은 단어들 이 등장한다면 우리는 그런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성경적이다’ 또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컨대, 교육과정 총론의 첫 머리가 홍익인간의 이념 대신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본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으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구속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과정은 ...”과 같이 시작한다면 어떨까?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국가 교육과

정을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것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서의 내용만 가지고 성경에 대한 적부를 따지는 것은 불충분하다. 물론 헌법이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지만(예컨대, 헌법 제21조, 제31조),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교육과정=문서’라는 공식은 너무도 협소한 정의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세계관 -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와 같은 문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믿음을 기초로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지식과 교과, 학문과

세상을 이해하려는 교사와 학생의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알버트 그린(Albert Green) 역시 그의 저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에서 ‘교육의 내용보다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는 분명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주제임에 틀림이 없지만,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어떻게’ 접근하고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어떻게’를 통해, 리차드 에들린(Richard Edlin, Jr.)의 말대로 교육은 중립성의 신화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초점은 교육과정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의 문제보다 교육과정을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성경이 추구하는 바와 어긋나지 않는가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 역량 중심교육의 방향성 문제

지난 2015년 9월,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이 교육과정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수시 개정의 취지에 따라 2007년과 2009년에 이어 가장 최근에 개정·고시된 현행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2017년 3월,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되어, 오는 2020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전 학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과거 여타의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갖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가?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에 따르면 첫째,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함

양하도록 하기 위해 ‘핵심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둘째, 인문·사회·과학기술 분야의 기초 소양과 인성교육을 강화하며, 셋째,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목의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넷째,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교실 수업을 혁신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언급한 네 가지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들여다보면 기초소양 교육과 인성교육의 강화, 학습내용의 적정화, 수업혁신 등은 과거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에서 교육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이미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논의되었던 주제들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핵심 역량에 대한 언급은 이상 세 가지 기본 방향과 달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내용이다. 이 점에서 핵심 역량은 여타의 국가 교육과정과 구별되는, 이번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고도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역량을 중심에 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의 학교 교육이 여섯 가지 핵심 역량(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길러내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전통적인 지식 교육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맥락적이고, 실천적이며, 활용 가능한 역량이 학교 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한다는 담론이 사회 전반에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이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다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습득하는 전통적 교육에 비해 진일보한 교육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이 글이 설정한 전제(내용 자체보다는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

의 중요성)로 돌아가 본다면,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는 결국 역량이 무엇인가보다는 그 역량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의 차원에 따라 결정된다. 자신의 삶에 대한 관리, 지식과 정보, 창의성,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그리고 공동체가 구조(structure)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개인의 안녕과 성공을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과 세상을 사랑으로 섬길 것인가-의 문제는 방향(direction)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비)성경적 특성이 드러나는 지점은 구조가 아닌 방향의 차원이다. 그렇다면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어떤 점에서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방향을 드러낼 우려가 있는가?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과 그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대조해 가며 살펴보도록 하자.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교육은 결국 인간의 본질을 훼손시켜

무엇보다도 역량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인 사회 변화와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교육의 성격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할 절대적 진리가 무엇인가의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에 따라 학교 교육이 담아내야 할 지식의 성격은 계속해서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다보니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태생적으로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과 일정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또한, 역량 개념이 애초에 직업훈련이나 직업교육 분야에서 비롯되

어 주로 경제, 산업 분야에서 발전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들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도 교육의 문제를 효율성 추구의 측면에서 접근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효율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과거의 어느 교육과정보다도 두드러지게 교육과정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교육과정의 성과를 관리·통제하기 위해 인간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특성을 수량화(quantifying human quality)한다. 인간의 본질과 특성이 수(점수, 등급 등)로 전환되면 그것은 즉시 비교와 경쟁의 대상이 된다. 이 점에서 효율성 추구의 미명 아래 인간의 특성을 수량화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선한 의도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눈여겨보아야 하는 일은 역량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할 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교육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학교 밖 전문가들이 교육 영역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역량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과 평가에는 경제학, 경영학, 통계학, 정책학 등의 전문가들이, 교육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교사나 교육학자들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다. 교육의 문제는 여타의 사회 여러 영역과 얽혀 있고, 긴밀한 협력과 연계를 통해 접근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의 제 문제는 여타의 외부 논리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영역 고유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

헤르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가 교육 외부의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이나 핵심역량을 거론하며 교육 전문가 행세를 하는 작금의 상황을 지켜본다면 분명히 '이 세상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궁극적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

니다. 그 영역의 주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에 대한 주권을 행사 하되, 하나의 영역이 다른 영역의 주권을 침범하거나 대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이라는 양상은 교육이라는 영역의 고유한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요'라고 말할 것이다.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성경적인 교육의 출발점

역량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 설계와 측정, 효율성과 경제성을 우선으로 삼는 외부 전문가들이 교육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될 때 학교 교육과 교사의 자율성은 현저히 침해된다. 교사라는 직업을 천직이라고 하고, 부르심(소명)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육에 대한 권위를 다른 이에게가 아니라 교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교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바탕으로 학생을 사랑으로 섬기고 가르쳐야 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에 대한 학교 밖의 힘이 강화되어 교사의 자율성이 축소되거나 침해된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교육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최근 들어 교육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일련의 현상은 역량 개념이 학교 교육에 들어옴과 맞물려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고 단언한다.

사실, 지금까지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언급한 몇 가지 이슈는 테일러주의(Taylorism)로 알려진 과학적 경영(scientific management)에 영향을 받은, 학교 교육에 나타난 사회효율성주의(social efficiency)의 주요 특징이자 그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다. 즉,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상당 부분은 사회효



율성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그것이 교육 현장에서 구현될 때 비교육적이면서도 비성경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사회효율성주의는 과학적인 관리와 통제를 통해 안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세기 전환기와 같이 사회가 불안정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 더욱 힘을 발휘한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니던가?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등장한 배경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교 교육에서 역량을 구현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효율성을 추구하고, 인간의 특성을 수량화하며, 외부의 힘에 의해 간섭을 받게 될 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비교육적인 일을, 교육을 행하며 성경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가치에 반하는 일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교육은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도록 '교육 전문가'에게 위임된 고유한 영역이다. 